



2005_11
membership magazine

people

지난 통영국제음악제 봄 시즌 개막지에서 진은숙의 '칼라 가아사' 초연으로 무대에 올러진 바 있다. 진은숙은 이미 지난 2004년에 음악계의 노벨상으로 평가받는 그라미어 상을 수상하고 올 초에는 아드놀프 힌테르크 상을 수상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 현대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곡가라는 사실을 입증시켰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 음악계의 거물로 떠오른 진은숙의 주 활동 무대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다. 이 같은 이유는 지역적인 연고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예술인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치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이란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거기에 뜬으로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최근에 감지되기도 했다.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 적극 장려되는 건녕 실제로는 위축되는 감이 없지 않은데, 대형 공연 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에 대형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하겠다는 발표는 어딘가 개운치 못한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예술인들에 대한 경제 지원에서는 그토록 인색하면서도 대형 오페라 하우스 건립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공사비에는 꽤 그리도 너그러운가. 최근에 ECM 레이블에서 발매된 트리오 미디어발의 세 번째 앨범에 담긴 여성 작곡가 홍성지의 작품을 접하

홍성지는 현재 세계 현대음악계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신성. 최근 그녀의 독창적인 음악세계가 담긴 음반이 ECM 레이블로 발매되어 주목받고 있다.



Stella Maris
Trio Medieval
ECM 1929/478 3021

지내고 있는 사이입니다. 이번에 수록된 미사곡은 이 친구의 제안으로 작곡한 작품이에요. 3성부로 구성된 비교적 연주 시간이 긴 작품이면 좋겠

다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작곡한 작품이지만, 지금은 가장 여작이 가는 작품 중 한 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미사곡의 전통적인 특성에 스칸디나비아의 음악 특성을 함께 담아내려 했습니다. 거기에 트리오 미디어발의 아름다운 보컬 앙상블과 ECM의 뛰어난 녹음 기술 덕분에 풍부한 잔향 또한 잘 살아나고 있어서 흡족합니다."

지난 통영국제음악제 봄 시즌에서는 아카데미 사중주단의 연주로 홍성지의 현악사중주가 연주되어 호평을 받기도 했었다. 그녀의 이름은 국내보다 외국에서 더 잘 알려져 있다. 티몬 레이블에서 오보에와 타악기를 위한 곡이 녹음·발매되었고, 올해만 해도 핀란드의 세이나요키 체임버 뮤직 작곡 콩쿠르 입상, 뉴욕 트레블 싱어스 작곡 콩쿠르 우수상, 브라이브 뉴워크스 작곡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하는 등 크고 작은 음악적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그녀는 현재까지 오케스트라, 솔로, 듀엣 곡, 실내악, 보컬 등 다양한 작품들을 창작, 발표하는 등 정력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미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 팬들이 그녀의 음악에 거는 기대와 희망이 큰 까닭은 그동안 발표한 작품을 통해 전통과 실험이 함께 숨쉬며 진화해나가는 새로운 현대음악의 또 다른 지평을 그녀의 작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글 신동욱 기자



ECM 레이블에서 미사곡을 발표한
작곡가 **홍성지**